

제 7대 인문대 여학생회



통일 염원 47년 6월 14일

인문 여성



스무살의 코스모스는 이 봄에 피고 마는가

-박승희님의 분신 앞에서

고 규 태<시인>

어쩌면 우리는 이제 작별해야 하리라
다시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기 위하여
잠시 아주 잠시 헤어져야 하리라

박승희여 박아가다여,
일찍부터 뜨겁게 사는 법을 배워버린
우리 시대의 참교육 제1세대여

목포바다, 밀려오는 흰 파도와 함께
정명여고, 흐드러진 철쭉꽃잎과 함께
연동성당, 저 높은 곳의 십자가와 함께

희망의 가슴 풀어 별을 즐겨 노래하고
피끓는 시를 짓고 늦도록 책갈피를 넘기던
해맑은 소녀의 모범이었던 아가다여

1990년 전남대학교 가정대 입학,
한때는 민중을 살찌우는 영양사를 꿈꾸었고
한때는 학사모의 내일을 드높게 상상했던

그러나 5·18광장에서 금남로에서 싸움터에서
창밖 눈보라 우짖는 교지 편집실에서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를 느끼고 흐느끼고

100년의 식민지를 투쟁 속에서 깨우치고
마침내는 학사의 꿈보다 먼저 전사의 삶을
온몸으로 온몸으로 살리라 다짐했으리

그리하여 오늘은 자신의 삶과 뼈에
시나를 끼었고, 죽음으로써 죽음을 고발한
우리들의 피붙이 조국의 딸이여

제 자신의 청춘에 불을 뒤집어 쓰고
활, 활, 활, 활, 활, 활, 활 타오른
반미의 꽃이여 민족해방전사여

아직은 봄우뢰 우는 사월과 소월인데
산자에게 무덤가의 산제비꽃처럼 살라 하고
그대 스무살의 코스모스는 이 봄에 피고 마는가.

글 심는 순서

- 여는 시 ... 1
- 글 심는 순서 ... 2
- 5월, 그 뜨거웠던 거리엔..... ... 3
- 광주 망월동을 다녀와서 ... 5
- 전대협 출범식은 나에게. ... 5
- '史學'의 여연(여성문제 연구소모임) 담리는?! ... 6
- 북녘 사람들은 잘 살고 있었다?! [기획I] ... 7
- '울화통, 슬프고 기쁘고 재미나는 우리들' 얘기 ... 9
- 탁아 자원봉사를 하면서. ... 11
- 거자제란? [기획II] ... 13
- 알림 - 우리 함께 '농활' 가요...
 · 교내에 미용실이? 정말!
 ... 15



... 뜨거운 6월,
 인문여성이 두번째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품고 여러분 가슴으로
 달려갑니다.
 열어 주세요. 나뉘 봅니다. ...



6 5월 9

그 뜨거웠던
거리들에 ...



푹.푹.푹.

백주대로에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강 경대 열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5월 항쟁을 예감하게 했다. "노태우정권 퇴진"을 외치며 뒤이어 쓰러져간 박승희, 김영근, 천세용, 김기설, 운용하, 이정순, 김철수, 정상수씨의 분신, 사망.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의 옥중 의문사. 시위도중 또 다시 일어난 광주시민 권창수씨에 대한 폭력. 총리교체이후 바로 일어난 과잉 진압과 무차별 최루탄난사에 의한 김귀정 학우의 죽음...

11월사의 죽음, 그로 인해 불붙었던 전국민적 분노와 투쟁

6월의 중간쯤 그 뜨거웠던 5월 투쟁을 돌아보고 5월투쟁 이후에도 그다지 변한 게 없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지난 5월은...

강경대 학우의 죽음을 접하자 학생은 물론, 국민들도 분노에 몸을 떨었다.

강경대 학우의 죽음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89년부터 불어닥친 공안 통치와 민중운동 탄압의 필연적 결과였다. 학우의 죽음에 대한 분노에 덧붙여 그간 노태우와 민자당이 저지른 정치적 행패, 경제적 무능, 온갖 비리에 대한 불만으로 학생은 동맹휴업에 돌입하고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경북대에서도 과별로 동맹휴업을 결의, 5·7전체학생비상총회에서는 4천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민주광장을 가득 메워 전체동맹휴업과 5월 노태우정권 타도 투쟁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매일 계속되는 투쟁에, 쏟아지는 최루탄을 뚫고 학우들은 거리로 나갔고, 경북대의 여성전사대, "진달래대"대원들이 주변의 시민들에게 정권의 비리를 폭로할 땐 뜨거운 박수로 지지와 격려를 보냈고, 대구에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시위대에게 날아드는 빵과 음료수는 5월투쟁이 얼마나 뜨거웠던가를 얘기해 주고 있다.

5월투쟁의 과정에서 학우들은 학생회로, 민주세력은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로 집결하는 조직적 성과와, 장기집권을 노리는 노태우, 민자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여 내각제 개헌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는 정치적 성과를 남겼다.

이런 성과와 함께 일정정도의 한계, 오류역시 5월투쟁의 과정에서 드러났었다.

대중들의 자발적인 투쟁을 총회와 파업투쟁의과정에서 올바르게 지도해내지 못한 지도부의 한계, 가두투쟁전술의 부족, 보수야당에 대한 입장의 차이, 구호는 외치지만 뭔가 구체적이지 못한, 빈약한 민주정부의 전망 등 많은 것들이 존재하겠지만 크게 이 정도로 살펴본다

***그러면 이제는...

6월 3일 외대학우들의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에 대한 계란세례를 둘러싼 기만적인 여론 조작과 학원에서는 기말고사로 인해 투쟁이 다소 주춤거리는 듯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서 살인정권, 비리정권, 노태우정권 타도와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져 있다. 노태우정권은 이 번 외대사건을 빌미삼아 학생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마 이 곳 복현에도 학생회 와해와 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일 치뤘길 광역의회 선거에 있어서는 온갖 부정과 타락으로 민주주의의 풀뿌리를 뽑아버리고 그 기만적 승리를 토대로 내각제 개헌을 시도하여 장기집권을 향해 나가려 할 것이다.

현재., 아직도 노태우는 권좌에 앉아서 민주세력에 대한 반격을 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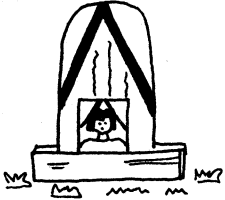
노태우가 대통령이고 그 배후에 미국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투쟁은 결코 그칠 수 없다. 자! 우리는 5월투쟁에 있어 우리가 보여준 정의와 용기, 그 뜨거웠던 합성을 되살려 다시 한번 학생회로 모여 학생회와해공작을 분쇄하고, 광역의회 선거에서는 민자당후보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그를 바탕으로 이후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 92-93년에는 우리들의 힘으로 기어이 민주정부를 수립하도록 하자!

오월투쟁에 참여하면서...

독문과 90학번

한 지연

모든 사람에게 그러했겠지만 어린 강경대 학우의 죽음은 나에게 실로 큰 충격이었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의 보질을 깊이 생각하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독문학우의 분노가 결의로 묶여 누엇거부를 이끌어 내었다. 날마다의 총회라 집회, 또 가두 투쟁은 통해서 나는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었다. 아,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이란 말이냐. 나는 실체를 알고 난 후 늑음에는 절망했다. 그렇지만 나의 속에는 새로운 각부가 다져졌다. 내일 죽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논변을 다하며 날아가겠노라고. 노태우 정부가 불의이긴 악이라면 난 거기에 맞서 과감히 싸우겠다고 말이다. 많은 열사들의 일같은 분신은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내 가슴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그들. 그 분신이 온몸을 산화하여 외지곤자 했던 뜻을 잊지 말라. 아직도 계속된다.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를 죽여 놓고도 그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앉지 않은가.



광주 망월동을 다녀와서...

최 효정 (불어불문 91학번)

지난 5월21일, 석가탄신일이었던 그 날, 우리는 광주성지순례를 가기위해 터덜터덜거리는 학교 버스에 올라타고 빗고을 광주로 향했다.

버스로 약 세시간 반이 걸려 도착한 광주망월 망월동 묘지를 보고 참 많이 놀랐다. 집회에서 노래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고결하게 성지화 되어있는 망월동 묘지는 조그만 언덕을 따라 촘촘히 세워진 작은 비석들과 사진들의 행렬이었을 뿐 그 곳이 성지라는 것을 깨달을 만한 그 어떤 손질된 시설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동시에 중학교때 참배하려 갔던 UN묘지의 어마어마한 규모가 생각났다. 참배객들의 손에 쥐어진 꽃 한 송이가 부끄러울만치 잘 정돈되고 반짝 반짝 윤이 났던 그곳.

우리 민족에게 총부리를 겨눈 그들의 죽음은 그리도 못내 안타까웠고 민족을 구하고자 한 목숨 바친 열사들의 죽음은 그리도 하찮은가?

1년에 한 번씩 망월동 묘지에 참배하러 오면 새로운 묘가 몇 더 생기는 것을 보게 된다는 한 선배님의 말씀이 그 날따라 내 가슴을 더 저리게 했다.

망월동 묘역에는 마침 이틀 전에 안장된 고 강경대 열사의 묘가 채 마르지도 않은 붉은 흙으로 덮여 있었고 그 건너편에는 한 영령을 붙들고 오열하는 사람의 모습도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흐느낌과 묘지 언덕에 내리쬐는 태양, 망월의 5월은 그렇게 가고 있었다.

온 몸으로 민주화를 부르짖은 광주시민들에게 있어서 5월은 단순히 열 두달중의 한 달이 아니라 그들 삶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는 5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망월동 묘지 언덕을 내려왔다.

전대협 출범식은 나에게...



밤새도록 빗속에서, 급하게 끌어준비닐을 어설픈게 걸치고, 찬 밤기운에 얼어죽을것만 같던 하루.

그날의 기억을 지금 낱알이 다 적을수는 없다. 그러나 나 혼자만 느끼기엔 너무 아까운 마음에 이렇게 몇자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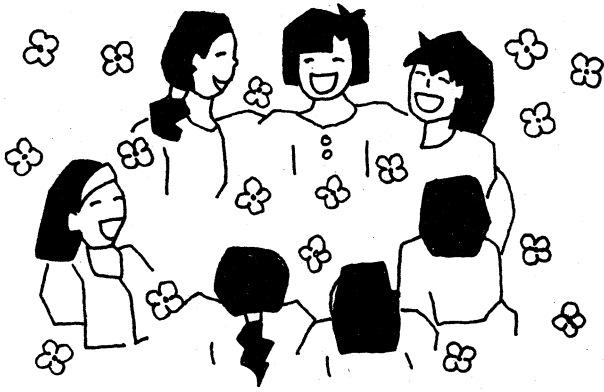
밤새떨다가 일어나 보니 여전히 축축하고 뽀뽀한 청바지, 그러나 그러한 생각도 잠시, 주위여자고 있는,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부시시한 얼굴들이 이만큼이나 가까이 와 있다.

내가슴 온통 따스한 김이 차 오름을 느낀다 출장가신 아버지가 돌아오시기전에 집어가 있으려면 퍼뜩 털고 일어서야 한다. 혼자 가는 길이 어설피서만은 아닌데, 몇번이나 뒤돌아보고 끝내는 몇걸음 안가서 창문으로 언니들, 동기에게 인사 한 번 더 하고 주위 한 번

박 소운 (국어국문 90학번)

둘러보고, 오후에 가두로 나가 어젯밤 함께 만든 대자보를 단단히 붙이고 부산시민에게 차근히 다 알리고 모두들 무사히 돌아오길 빌면서 기차에 올랐다.

나는 아직 잘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 빗속에서도 출범식을 치뤘던 학우들."우리 경대가 정말 죽었습니까?" 울먹이던 경대의 누나. 지나 5월에 나를 집회장소에, 가두에, 그리고 부산에 있게 한 경대를 또 생각했다 대구에서의 생활은 다시 바쁘지만 어느새 나는 농활 갈 마음을 먹는다. 이번엔 후배들, 동기들, 선배님들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6 '史學'의 여연 담 리는?!

담리, "담장을 넘는 목소리"란 뜻이다. 간혹, "여자가 목소리만 높이면 여성해방이 되냐?"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여성도 이제는 순종의 굴레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 당당한 인간으로 서야 한다는 담리인들의 주장이 담겨져 있다.

담리는 90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90년 첫 모임때는 15명의 남·여학우로 구성되어 힘차게 시작했지만 체계적인 커리의 부족과 여연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지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91년 담리는 8명으로 구성되어 3월 중순에 첫 모임을 가지고 "오늘 썸바귀 꽃으로 살아"중 여성 문제의 기원,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중 마광수 비판을 토론하였다.

또 총여학생회 주최의 "자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한마당"과 인문대 여학생회 주최의 "열린 극장 열린 소리마당"에 집단적으로 참가하여 경북대의 다른 남녀 학우들과 여성문제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각자가 생활해 오면서 가장 부딪혔던 문제,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5분 발표회"와 "고삐"를 읽고 토론하여 여성문제가 단순히 여성 개인이나 남성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모두들 놀라와 하였다.

"5분 발표회"때는 준비가 많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벽에 붙여져 있던 선정적인 영화, 연극 포스터를 떼오는 열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학교 주변이나 학내의 문화들을 짚어 보면서 성 상품화의 반인간적인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되었고 그 원인은 바로 상품경제에 기초한 자본주의 사회구조에 있다는 것에 공통의 의견을 모았다. 그러므로 여성의 상품화 과정은 곧 인간의 상품화 과정이며 여성해방은 곧 인간해방임을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담리는 아직도 과 안에서 정식 학술반이라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지만 모임원들간의 신뢰와 단결된 힘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과에서부터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주력할 것이다.



남북 사람들

‘잘’ 살고 있어다?!

남북한의 유엔 가입에 대한 논쟁이 계속 되는 요즘, 다시 한번 조국 통일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된다. 통일된 세상에서는 논란이 되지 않을 것들이, 절반이 잘린 분단조국이기에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될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

이에 마침, 가장 최근의 북한 취재기를 접하여, 북녘 동포의 일상적 삶과 꿈에 대해 새롭게 느끼고 알게 된 부분이 많았기에, 여기서는 그와 함께 극히 미약하게나마 북한여성의 사회진출이나 그들의 생활을 얘기 하고자 하였다.

비민주, 예속, 분단을 비롯한 모순으로 점철 되어진 이땅에서, 2중 3중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역시 통일이라는 과제를 풀어 갈 주체임을 자각하고, 언제라도 뚫출 수 없는 통일의 고삐를 힘껏 부여 잡자!

집단주의 사회의 기본은, 개인은 전체를, 전체는 개인을 위하여, 개인과 전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확일적이고 개인의 자유가 아예 무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시각과 관점의 한계일 수도 있다.

북한을 다녀 온 사람들은 한결 같이 말하는게 있다. 그것은, 북한을 이해하려면 먼저 편견을 없애고 그들 사회주의의 시각으로 또는 북한사람의 시각으로 모든것을 바라 보는 일이 어렵지만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체제나 사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잃어 버린 고향을 찾은 듯한 푸근함을, 북한에서는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의 소박함과 순진성, 퇴폐나 이기 같은 것은 찾아 볼 수 없는 성실한 모습 등이 그렇다.

큰 도로를 제외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고용되지 않아서 동네의 청소는 사람들 하루 생활의 시작이며, 대중 교통 수단으로는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건설 중인 전차가 있다. 전차는, 매연가스가 없고, 우리 땅에서 나지 않는 기름 대신 전기로 움직이며, 버스보다 운송 능력이 몇갑절 뛰어나기에, 요즘 전차 궤도를 신설하고 있다.

음식에는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아서 음식 공해가 없고, 남한의 음식보다는 싱겁고 담백하다. 음식과 함께 술도 자극적으로는 마시지않는다. 폭음이나 2차 3차를 가는 습관이 없는 것은 북한 사회의 절제력을 보여 주는 일면일 것이다.

아파트는 나라에서 무상분배하는데, 사는동안 소유권은 입주자에게 있고, 한달 생활비의 8%가 되는 사용료를 내고, 상이 군인등 국가 유공자에게는 입주 신청시에 우선권을 준다고 한다.

또, 북한의 유행이라면 영화나 TV에서 인기 있는 배우의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을 따라 하는 정도이며, 요즘은 제일 동포 합자 회사에서 패션쇼가 하루에 여러 차례 열려머지 않아 북한 의류 산업에 변화의 조짐이 있을 거라고도 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타락할 자유는 없어도, 의식주를 보장받을 자유, 교육 받을 자유, 치

료 받을 자유가 있으며, 이러한 것은 국가에 의해 무상으로 혜택을 받는다.

북한의 여대생들은, 교복을 입고 확장기 없는 얼굴에 크고 묵직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남한과는 비교과 된다.

북한에서는 여성들의 활동이 또한 두드러지게 활발하다.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서,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거,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 하다 보니 여성의 노동력도 많이 요구되어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과 참여가 필요해짐에 따라, 그에 뒷받침되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 것 때문이다.

남여 노동자의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보장되며, 77일간의 산전 산후 유급휴가 완전 실시, 주, 월, 계절 탁아소 설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은 하루 6시간만 일하며, 산후 노동자의 경우 하루 2회 30분 이상씩의 수유시간을 가진다.

전문 분야나 어려운 노동에서도 여성이 차지 하는 역할은 크며, 농업이나 공업부문에서는 거의 50%가 여성의 노동력이다.

도, 법적으로 가부장제가 철폐되었고, 여전히 북한에도 성에 관한 편견이나 봉건적 사고가 잔존하긴 하지만, 남편이 부인을 때리는 등의 폭력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에서는, 여성이 발사가 교원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고, 안 좋은 냄새를 맡아야 하는 구두닦이 같은 직업에는 특별수당이 지급되고, 또 의사와 노동자, 교수와 밥공장에서 밥짓는 여성이 부부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한, 노동을 중시 하는 풍조와 여성들의 풍부한 사회 진출은, 부엌일에 대한 부담으로 부부의 해방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이렇게, 북한 동포의 아주 일상적인 삶과, 북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느정도 가능한 ^{북한} 여성의폭적인 사회진출과 여성해방이 남한에서는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남한 사회의 모순을 제대로 바라 보고, 분단이 우리에게 던져 주는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되새겨, 나아가 조국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하는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글은, 얼마 전 한겨레신문에 연재된 바 있는, 재미언론인 조광동씨의 북한 방문기 (91년 4월 6 -27일)에서 솔하게 발췌했음을 2200 인문학우에게 솔직히 고백 하는 바이다.



울화통

슬프고 기쁘고
재미나는
우리들 얘기



화사하구나.

봄 햇살 아래 펼쳐진 밖의 풍경도,
여학생 휴게실의 분위기도.....
누군가 먼저 개시를 해주길 바랬는데.
아무도 안해서. 늦은 시간에 내가 쓰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한층 우리 곁으로 다가온듯한
여학생 휴게실의 정성스런 봄 단장에
편이나 기분이 좋아졌다.
아쉬운 점이라면,
이런 변화가 전작에 있어주지 않았다는 것.
가꾸고. 보듬고. 어우러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쪽-

-갈아 엮는 달. 15. 바람-

* 5.17 * 아주 안생겼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사학과의 90 학번입니다.
못난 제기도, 맛있는 '꼬꼬' 처럼
좋은 친구들이 몇명 있는데, 그 중
한명이 얼마전에 보내온 편지에서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나도 너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너나 비슷한 귀치이서서,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러나,
너는 너의 길이, 나에게 나의 길이
따르겠을것 같다. 자기가 서쪽은곳에서
각자 열심히 하자.)
그편지를 받고 울었습니다.

이제는 2학년 -학점상으로는 1학년임은
고백하고 싶진 않지만- 1년이넘게 최후한
지랄한 속을 뛰어다니고, 여름이면 농장에서
거머개기 피로 발려보고, 조류등을 위한
병헌죽머리에도 참가해 보고, 아마도
교동학교대까지의 내 경험보다 지난
1년이 더욱 파란만장하지 않았을가
생각합니다. 머거터지게 고민도 해보고,
목숨내 걸고 수도 마셔 보았습니다.

저는 9
저의 사랑 하는 친구 - 삶과 음악과 사랑을
사랑하는 친구의 손을 잡아주고 최후한목으로
뛰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정도
치열하게 살았던 1년을 뒤돌아보며 한가져
애기하고 싶은것은, 우리는 결코 다른자리
따를 위치이 될수 없으며, 우리모두는
이땅의 진정한 허방을 위한 길에
함께 서있어야 할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독재는 행복합니다. 그희망을 결코 저
혼자만의 희망은 아닐것입니다.

세상의 반이 여자라는데,
권익은 그렇지 못한것 같다.
같은 대학생이라도 '여대생'은 힘든 존재다.
갈수록 자신을 잃어가고 졸업후에도 후회거리고.
대학 4년동안의 열매는 무엇으로 남는가?
곰곰히 생각해 본다.
시험 잘 가기 위해 여기 이 대학에 들어온 것이라면,
시험도 못하는(잘나) 사람은 실패작에 불과한건말까?
졸업은 많은 의문명어리를 남기고,
우리네 사투이 다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환관해 본다.

- '96학번 어느 대학원생 -

오해 여학생 휴게실만 있습니까?
울화통 터집니다.
남.여 공용으로 합니다.

- 감니 다녀간 남(똥)학우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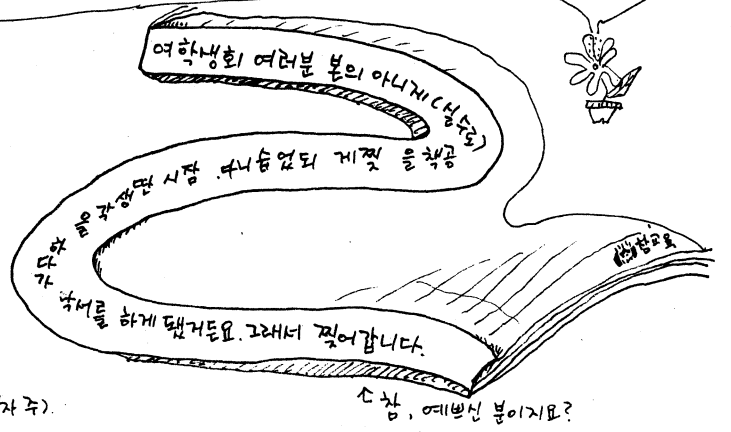
* **물화통** - 멋진 이름이다. 잇따른 총회와 토론으로 답답해진 나의 마음 - 그것이 이 이름과 부합되는 것 같다. 2학년 총회가 있었는데 앞에 선 사람은 우리와 같이 수업되고 도서관에서만 열줄 내미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며 학교 다니는가 궁금할 것이다. 모두들 한마디씩 하는데, '왜 데모는 북문에서만 하는데...', '왜 노태우 아저씨만 갈망인데', '거리엔 주민들이 화염병도 이제 그만, 최루탄도 이제 그만, 플래카드를 내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바에야...', 우리는 그날 내내 힘이 빠져 있었고 답답하고 피곤했다. 우리는 말한다. 無知하다면, 대자보라도 읽자. 한겨레 신문이라도 읽자. 대자보도 읽으려 하지 않는 아이들의 양태로는 합리화될 수 없다. 역사적 사회적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학점과 안위에 구속된 - 갈혀진 - 우리들. 이기주의를 떨쳐 버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요즘 '폭력'은 어느 방식으로든 합리화 될 수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민중의 요구를 표출하는 방식도, 그것을 진압하는 행정권의 방식도 폭력으로 표현되는데. 폭력을 보는 관점을 정리할 수 없다. 고민이다.

대학 ...
 방향이 시작되었다. 깊은 수렁에 바진 느낌이다.
 많은 시위들 속에서 떠밀려 움직여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소영을 주위에 들떠 있는 추잡한 나를 보고 ...
 처가 떨린다. 머릿속이 엉망이다.
 인간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눈앞에 닥치면 도파하러 가는 습성이 있는가 봐.
 없다. 무엇을 모른지도 모르는 '나'
 깊은 티다 느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단속과적 무색의 형태로 차가운 이념적 판단력을 위해, 온바른 방법 모색을 위해 같이 필요하다. 또한, 많이 실천은 불어이고 ...
 어젠 나를 기다려야 겠다.
 이사회에 진정히 필요한 연출이 되려면?
 - 중훈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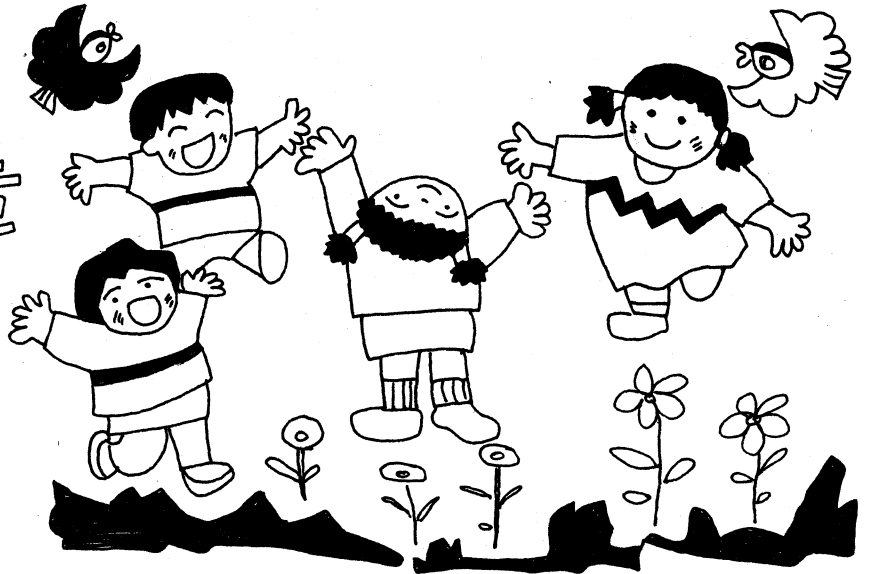
공부하기 싫다
 악
 발작 아니다.

누굴까?
 크레파스로
 이렇게 커다랗게 외치는 이는? 돌아주고 싶다. (편잡자 주)



* 이 글들은 4월 초 인문대 여학생회에서 여학생 휴게실에 비치한 노트 '물화통'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글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면이 협소하여 조금밖에 선지 못하였습니다. 거금도 휴게실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들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터로 이용해 주십시오.

탁아 자원봉사를 하면서...



강 윤희 (독어독문 88학번)

빈민 탁아소 자원 봉사 활동, 불과 4개월째에 접어들면서 탁아현실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주저넘은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탁아실정이란 첫 발만 디더 보아도 그 안타까운 속사정들을 알 수 있기에 여러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동 탁아활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감히 붓대를 잡아본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분주한 가운데 생활을 꾸려가고 있을 즈음, 신설된 "총여학생회 탁아분과"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읽게 되었다. 나름대로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내게 그 대자보는 마치 구원의 손길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탁아현실에 대한 미비한 지식과 봉사에 대한 막연한 열정만을 안고서 총여학생회 탁아분과를 통해 비산동에 있는 "민들레 탁아방"을 소개받았고 그탁아방의 사정과 내 시간을 적절히 고려하여 금요일 10:30부터 3:00까지로 활동시간을 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이면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서곤 한다.

활동일과를 보면 10시30분쯤 도착하여 아이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책을 읽어주기도 하며 때때로 발생하는 아이들끼리의 작은 분규(?)들에 해결사가 되기도 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애들의 뒤치닥거리를 하다보면 금방 점심시간이 된다. 또 애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엔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돌봐주고 식사가 끝난 후에 낮잠 잘 준비를 하는 동안 방청소를 해놓고 잠이 든 후엔 설것이 시간.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을 모두 끝내놓고선 교사언니들과 차 한 잔 마시면서 탁아사정 얘기랑 개인적인 얘기들을 도란거리다 보면 금방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알게 된 탁아의 현실정들은 그 이전 신문이나 자료들을 통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세히 다가오는 것이었다. 즉, 영리 탁아소 경비부담으로 저소득층 맞벌이부부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그대로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빈번히 자생되고 있다는 것.

탁아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놀란 정부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탁아입법안"이란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한 비영리 민간 탁아소에 대한 탄압의 구실로 작용하며, 이것도 껌대기뿐인 탁아정책의 실체라는 것 등, 이렇게 드러나는 실정들 외에도 해결의 손길을 기다리며 산재해 있는 많은 어려움을 직접적인 활동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다. 재정적 어려움과 인력부족이 그 두드러진 난점이라 할 수 있는데 탁아방 건물에 들어가는 보증금, 달세값 부족으로 좀 더 나은 탁아 살림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력저력 수익사업으로 탈세 메꾸기에 급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교사 두 분당 아이들 15--17명이 전담되어 아침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활동중 가장 먼저 눈에 띈 어려움들이었다. 그래서 "총여학생회 탁아분과"에서는 경대 자원봉사자들을 하나로 묶어내어 단결된 힘으로 "대구지역 탁아소 준비위원회", 비영리 민간탁아소를 돕고자 노력해왔다. 가장 최근의 성과물로는 대동제기간중, 홍보활동겸 기금마련을 위한 주점운영이었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서로 친해졌을 뿐 아니라 학우들과 함께 탁아사업에 대한 공감대형성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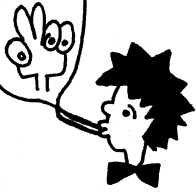
가슴 뿌듯했던 일 중 하나는 복현가요제에서 1등을 한 학우가 상금을 탁아분과에 기부한 것인데 이것은 학우들의 마음이 하나, 둘 모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

남학우들은 탁아활동을 여학우들만의 일로 치부해버리고 여학우들은, 모성보호, 여성운동, 나아가선 노동운동과 직결되는 이 탁아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한 앞에도 우리의 아이들은 연탄가스, 화재, 죽어갈 것이다. 반면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하나되고 있는 한 죽어간 아이들의 낮은 살아있는 아이들의 마음에 부활할 것이다.

꿈이 더 필요한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일을 함께 하자고 권유드리고 싶다.

마음은 있지만 여러 사정상 직접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학우들은 인문대 여학생회를 통해 재정 후원 회원(한 달에 5백원 이상)이 되어 주시면 학우들의 작은 노력들은 직접적인 활동 못지않게 아이들에게 소중한 꿈들로 자리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획



지자제란?

지난했던 5월투쟁을 지나, 뜨거운 폭염의 6월을 맞고 있는 지금, 우리 앞에는 광역의회선거라는 그리 친숙하지 못한 이름이 놓여져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비리라는 '수서비리'앞에서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그 엄청난 '오물'을 치워버리고자 하는 여당과 자신들의 입지점을 그 기회에 조급이라도 넓히려고 하던 야당이 합작하여 낳은 것이 '지방자치제'이다.

출산배경이 어떻든간에 '지방자치제'의 시대는 이미 그 발걸음을 떼놓기 시작했고 그 발걸음의 지향을 올바르게 정하여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지방자치제'의 어색함을 떨쳐 버리고 정치의 진정한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가 과연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1. '지방자치제'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란 지방정부를 주민의 신임에 의해 구성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선거를 통해 민이 직접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 요건으로 보다 많은 사람의 직접적인 의사반영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럼, 현대 국가에서의 지방자치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자.

(1)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실정을 조명해 볼 때, 입·사법, 행정의 3권 분립만으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럴 때, 지방자치는 의사결정권과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집중을 막아 독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2)현대국가는 정치참여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협소화되고 있는 사회이다. 이에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종합적 정부로서의 기능을 갖추 권력과 시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3)고도로 확대된 중앙집권적 행정기능은 실제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지역간의 불균형을 확대하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분권적인 행정체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

(4)지방자치는 정책혁신의 주체를 다원화시켜 정치와 정책의 활력을 회복하게 한다.

(5)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유대가 요구되는 현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국제간의 문제들을 전담하여 국가의 방향을 바로 잡는 정책기능에만 그 역할을 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역할분담으로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해야 올바른 지방자치제가 실현된다

이러한 의의를 지니는 지방자치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형태로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자.

2. 현 정세속에서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위에서 지방자치제의 탄생배경을 밝혔듯이 수서비리의 은폐를 위해서 그동안 빅카드로 준비해두던, 지방자치제를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여당은 선거의 준비정도, 중요성등을 타산하여 3월과 6월 기초, 광역 분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기초의회 선거를 평가해보자.

기초의회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적 양상은

- 1) 전국 평균 55%라는 저조한 투표율
- 2) 당선자 중 75%라는 여당의 압승 (무소속과 친여 성향 당선자 포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의 원인으로

- 1) 급작스런 선거실시로 인한 야당의 준비부족
- 2) 제도권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정치허무주의에 따른 무관심
- 3) 관권 개입에 따른 홍보부족, 공안세력 개입으로 인한 선거분위기 냉각
- 4) 지자체 기초의회 선거의 원태적 한계(동네선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초의회 선거에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선거에서 나타난 민족민주운동의 무력함이다. 애초에 민족민주진영은 수서비리 은폐음모에 휘말리지 않고 정권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의회를 원천적으로 거부했으나 선거과정에서 소외되었을 뿐 유의미한 정치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기초의회 선거의 압승을 바탕으로 광역의회 선거에서 정권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현정권은 지자체를 통하여 확보된 의회공간을 통해 장기집권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내각제를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서의 승리를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승인으로 내세워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정권의 의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3. 우리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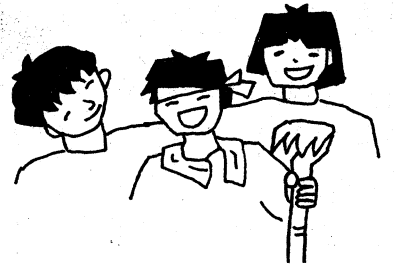
한번더 노태우 정권의 비리와 부패를 일일이 들추어 우리의 투쟁의 정당성을 재확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노정권은 곧 있을 6월 20일 광역선거에서 자신들의 장기집권 음모에 대한 사전포석을 놓으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광역선거에서 노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세울 맞수를 놓아야 한다. 기초의회 선거에서의 무력감과 정치에 대한 불신과 허무주의를 떨쳐버리고 다가올 광역의회 선거에서는 이렇게 하자.

많은 후보들이 나서서 저마다 자기가 진짜 일꾼이라고 늘어놓을 것이다. 그중에서 우리는 민자당 후보는 무조건 찍지말자. 사람이 좋아보이고 개인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결국 그 한표는 민자당의 장기집권 음모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보다 더 높은 물가고 더 극심한 탄압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민자당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과 민자당의 본질에 대하여 토론하고 누가 진정한 민주일꾼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자.

나로부터 무관심의 벽을 깨고 광역의회 선거에서 행사하는 소중한 한표로 민주대연합과 민주정부 수립을 하루라도 앞당기자.

알림 '우리 함께 농활' 가요...



'91 여름 농활-거머리한테 피 빨리면 고혈압에 좋다는데...

*언제? 7월 1일-9일

*어데로? 금릉군 쯤

*어떻게? 과 학생회로 신청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싸들고 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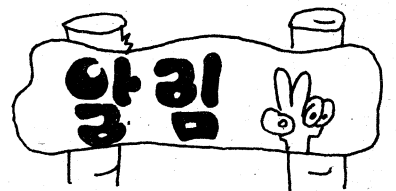
*와? 농촌 일손이 부족하고, 그들이 아직도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것은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UR협상으로 인해 수입 농축산물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게됩니다. 소값 파동, 고추파동, 수입쇠고기암매장,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현장에서 들어 보고, 느껴 보고 그 원인들을 분석해 보는 계기로도 농활은 작용합니다.

그러나, 문이 없는 변소에 앉아서 속도 태워 보고, 극성스런 시골 모기에 뜯기고, 다리에 척척 달라 붙는 거머리에도 물려 보는 여름 농활은, 한 번 가볼만 한 곳이지요.



교내에

미용실이? 정말!



어디에 있냐구요? 신학생회관 1층 소비조합 옆에 있습니다.

오늘 따라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머리를 할려고 했다. 그런데 총여학생회장님이 구내 미용실 가자고 꼬시는 거다. 좀 짹짹했지만 구내 미용실에 갔는데--- 그런데 아. 내머리 엄청 예쁘게 나와서 그 자리에서 뿡가버렸다.

파마약 특별히 좋은 걸로 해서 9천원. 남은 돈으로 총여학생회장님이랑 맛있는 밥에 하드도 먹었다.(우리 엄마한테는 비밀이지만 그러고도 돈이 남았다. 용돈 벌었다) 드라이 1천원, 컷트 1천 5백원, 일반파마 7천원, 특수파마 9천원, 스트레이트 1만천원이라나---

친구들 많이 꼬셔서 밥 얻어 먹어야지.(히히)

**소문에 의하면 미용실 아줌마가 안동에서 제일 기술좋은 미용사였는데 총여학생회장님 꼬임에 빠져 복현으로 오셨다나 뭐라나.